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9월로 미뤄

전주시, 보존회 내부갈등 봉합 '조직위원회 체제'로 치르기로 이달 중 조직위원장 영입

조직위 구성 등 문제로 기존 5월 개최에서 연기

전주시는 개선기미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전주대사습보존회의 내부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기 위해 2017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조직위원회 체제'로 치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주대사습보존회는 지난해 이사의 배임수재 혐의 기소에서부터 재판과 항소, 보존회 집행부 사퇴, 이사장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져분 신청 등 파행을 거듭해 왔다. 시는 이번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기 위하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주관을 당초 대사습보존회 중심에서 탈피, 올해는 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해 치른다는 방안이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조직위 구성 등의 문제로 기존 5월 개최에서 9월 개최로 연기했다. 사진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현장.

이를 위해 3월중 조직위원장을 외부명망가 중에서 영입, 전주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 체제로 대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 구성은 현재 행정과 보존회 중심에서 교수·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구성인원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5월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를 대사습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 대·내외 문제가 산적해 있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을 고려해 9월경으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대사습놀이 위기의 발단이 심사비리에서 시작된 만큼 심사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확보에도 주력한다.

그동안 심사위원은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에서 30여명의 인력풀 구성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회 조직위원회 내에 별도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보존회 이사의 심사위원 참여 원천배제,

예산·본선 심사위원 별도 구성(관소리명창부, 기악부, 무용부), 심사위원 회피제도 강화 등을 통해 심사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주 관소리 다섯방 창무대를 대사습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관소리의 정수는 완성에 있다며, 이를 통해 대사습대회 분위기를 고취·발전시켜 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

소리 명창부 장원 대통령상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를 재조직하고 개최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한다면 9월 개최 이전 대통령상을 되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전북도·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오직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문화자산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무주만나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무주군은 안성면에 소재해 있는 무주만나작은도서관(관장 이무흔)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의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17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주만나작은도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전문(문화) 강사를 파견 받아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3월 29일(16:00~18:00)에는 영화 "위도" 감독인 백정민 감독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감상과 원리를 통한 영화읽기 "영화 속 주인공 만나기"를 진행하며 4월 26일(10:00~12:00)에는 전북미술관 도우스트 강숙연 씨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양미술사 맛보기 시간을 갖는다.

5월 31일(16:00~18:00)에는 "학교가 돌아왔다", "어른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의 저자 윤일호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4~6학년)들과 "함께 삶이 하나되는 삶을 가꾸는 시 쓰기"를, 6월 28일에는 동화작가 윤미숙 씨가 "수요일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뽀뽀뽀 이야기 향기"를 진행한다.

8월 30일에는 배희선 씨가 시조창을, 9월 27일(16:00~18:00)에는 전주시민대학 인형극 & 그림자극 강사 이미경 씨가 영유아들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림책이 그림자극 속으로 풍덩"을 강의한다.

11월 29일에는 그림책 책놀이 선생님 윤혜경 씨가 초등학생과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민들레 흩날리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강의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 문예진흥기금 6개 분야·9개 단체 지원

군산시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국악 등 총 12개 분야에서 관내에 1년 이상 소재를 둔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 받았다.

9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개 분야 총 9단체(5, 개인4)에 지원될 상반기 보조금 총액 1800만 원을 확정했다.

작년까지 지원사업은 단체에 300만원, 개인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분야별 사업성격,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해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 /군산=문정론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내일 상영작 '토니 에드만'

유머의 힘 믿는 '괴짜아빠' 성공제일주의자 '워커홀릭 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삶의 재미를 잃어 버린 딸을 찾아온 괴짜 아빠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토니 에드만>을 16일 개봉·상영한다.

<토니 에드만>은 유머의 힘을 믿는 괴짜 아버지가 인생의 의미가 성공에 있다고 믿는 워커홀릭 딸을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자 워커홀릭인 딸과 괴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



의 좌충우돌 해프닝

해 관객들에게 인간미와 독창성을 겸비한 코미디 영화를 선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으로 세계 유수의 언론 및 평단의 찬사를 받았으며, 유러피안필름어워즈에서 5관왕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또한 2017 골든글로브시상식에 연이어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06년 '레퀴엠'으로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산드라 힐러와 독일의 연기파 배우 페테르 시모니슈에크가 부너로 출연했으며, 주목받는 독일 감독으로 평가받는 마렌 아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 공개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주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경쟁'은 상영시간 40분 이상의 중편 혹은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한 메인 경쟁 섹션이다.

올해는 일반 공모 128편, 지역영화 공모 5편의 출품작 중 프로그래머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1편의 작품이 본선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경쟁' 본선에 오른 작품은 <쌈>(황규일), <폭력의 씨앗>(임태규), <해피니스 데이>(이승원), <여수 밤바다>(정형석), <수성못>(유지영), <노마드>(이완수), <B급 며느리>(선호빈), <금속활자의 비밀들>(우광훈), <버블 패밀리>(마민지), <괴짜아빠>(박문철), <홀로그래프 유니버스>(김지혜) 등이다.

장르별로는 극영화 6편, 다큐멘터리 5편으로 구성됐다. /정해은 기자

이들 작품 중 다큐멘터리가 16회 영화제에서 1편, 17회 영화제에서 3편에 이어 올해 5편이 본선에 진출한 것은 다큐멘터리 장르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로 손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버블 패밀리>의 경우 2015년 전주프로젝트마켓(JPM) '다큐멘터리' 피칭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프로젝트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영화 제작으로 이어져 전주영화제에 출품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김영진 전주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는 "예년에 비해 더욱 나아진 다큐멘터리의 수준 덕분에 이전과는 달리 더 많은 다큐멘터리를 선정했다"며 "<B급 며느리> 등의 다큐멘터리들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 경향을 각자 증거하면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양상들을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세밀하게 담아내는 영화"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전주한지박물관, 백미숙 작가 초대전

한류의 본고장인 전주에서 오칠구칠을 운영하고 있는 백미숙 작가가 새 봄을 맞아 그 동안 아낌차려 준비한 전시회를 전주한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옷칠 작업으로 우리 선조들의 좋은 의미인 백수백복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백미숙 작가는 화려하면서 다양한 채화질이 전주한지의 결함으로 또 다른 옷칠세계를 보여준다.

지난해 겨울 서울의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마치고 바로 이번 전시를 준비한 작가는 "옷칠의 향을 느끼는 그 기쁨이 크기에 더욱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백 작가는 다양한 한지와 옷칠의 결합으로 작업을 하고,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번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옷칠의 향을 느끼게 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미숙 작가는 "전통이 전통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좋은 문화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옷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장소는 전주한지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이며, 전시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계속된다. /인재용 기자

여름방이나 가을까?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전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은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봉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